2023. 2. 9.

국회도서관 | 2023-2호(통권 제52호)

현안 외국에선?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

김 현 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음. 특히 지역별 불균형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한 가지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임.

우리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미국은 그동안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음.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에도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시작하며

-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한 사건은 우리나라의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드러냄.[1)]

-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5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1.8명에 불과함.[2)]

- 의료 기술 및 시스템에 있어서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1 시사저널. (2022.8.2).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왜 수술도 못 받았나.
2 농민신문. (2023.1.13).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기 힘든 농촌.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영어 담당) ☎ 02-6788-4402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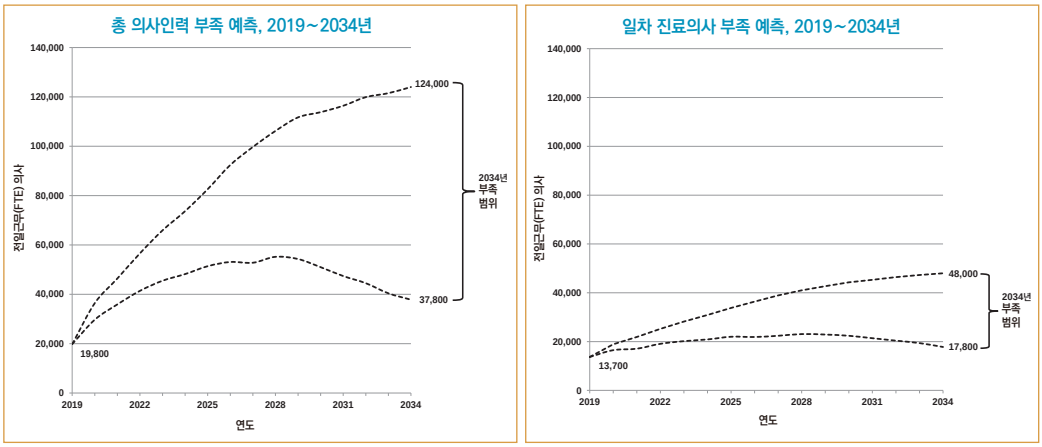
있음. 특히 일차 진료의사[3] 부족으로 진료 대기기간이 2022년 기준 평균 26일 소요되었는데, 이는 2004년 조사보다 24% 증가한 수치임.[4]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의사부족과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다층적인 대처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 실천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미국 내 의사 부족 현황

-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The Complexities of Physician Supply and Demand: Projections From 2019 to 2034)'에 따르면, 2034년경에는 미국의 의료수요 대비 활동의사인력 공급이 3만 7,800명~12만 4,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일차 진료의사의 경우 1만 7,800~4만 8,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의과대학협회의 미국 의사부족 예측(2019~2034년)



자료: AAMC. (2021). The Complexities of Physician Supply and Demand: Projections From 2019 to 2034.

- 의사인력의 부족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5]
  - 인구 증가,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향후 의료진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임.

3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을 크게 '일차 진료의사(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및 '전문의(Specialist Doctor)'로 구분함. 해마다 배출되는 의사들 중에서 일차진료를 전공하는 신규 의사는 필요한 숫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일차진료의 경우 다른 전문의보다 수입은 낮고 의료사고 대비 보험료는 비싸기 때문임. (참고: 미주중앙일보. (2015.6.23). 메디케어에서의 주치의와 전문의.)

4 Healthleaders. (2022.9.12). Physician Appointment Wait Tim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urvey Fi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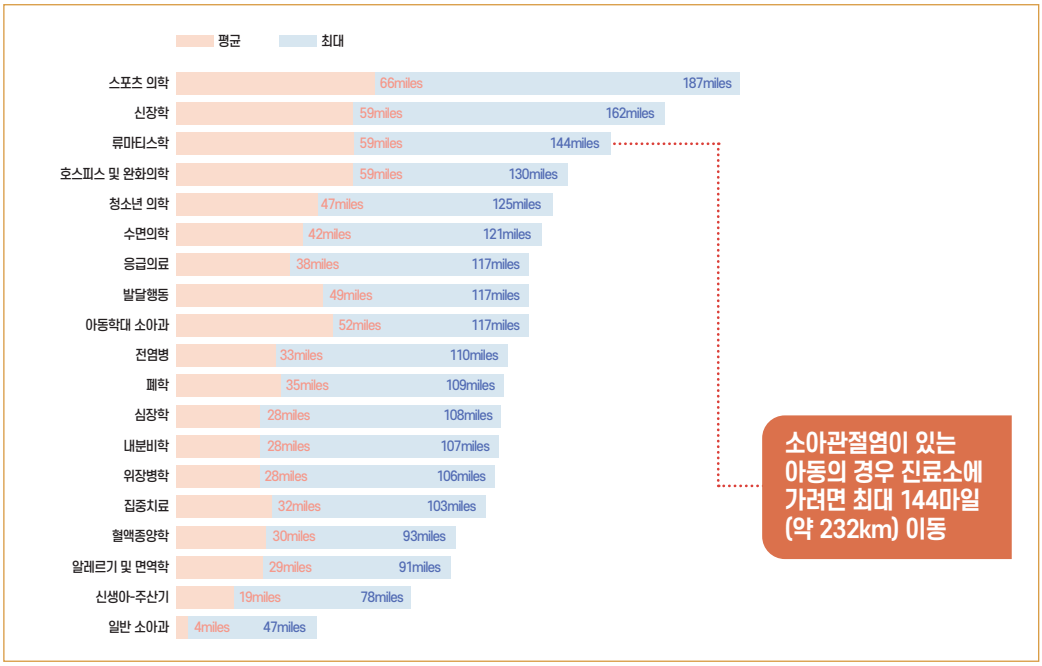
5 AAMC. (2021). The Complexities of Physician Supply and Demand: Projections From 2019 to 2034.

2019~2034년에 미국 인구는 약 3억 2,800만 명에서 3억 6,300만 명으로 10.6% 증가할 것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2.4%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노인 전문 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임.

- 현직 의사 5명 중 2명 이상이 향후 10년 내에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이들의 은퇴 결정은 의료인력 부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전미의사표본설문조사(2019 National Sample Survey of Physicians)에서는 미국 의사들의 40%가 코로나19 이전에 주 1회 이상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진의 번아웃 증가 추세는 향후 근무시간 축소 및 조기 은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소아과의 경우 전문의 수는 아동 10만~20만 명당 1명이며, 소아과 전문의 진료 예약 대기 기간은 평균 5주~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6]

미국 앨라배마 주 아동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



주: 소아과의 각 진료과목별 이동 거리(평균/최대)가 나타남.
자료: AAP 〉 Pediatric Subspecialty Shortages Fact Sheets. 2023.2.4. 인용: https://www.aap.org/en/advocacy/pediatric-subspecialty-shortages-fact-sheets/

6 Health Capital Topics 〉 Shortage of Pediatric Specialists. 2023.2.5. 인용: https://www.healthcapital.com/hcc/newsletter/03_14/HTML/Shortages/7.3_specialty-non-surgical-shortages-3.27.php
한국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지난해 사상최초로 10%대로 떨어져 소아진료체계 붕괴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의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과 저수가,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의료진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옴.(참고: 의사신문. (2022.12.13). "소아청소년과 정말 없어지나?"-전공의 지원율 사상 최초 10%대.)

III. 대응 방안

1. 국가보건의료지원단(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NHSC) 운영

- NHSC는 「응급의료인력법(Emergency Health Personnel Act of 1970)」에 의거하여 연방 의회가 설립한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시행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의료인 부족 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7]에서 진료를 시행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2021년 기준 2,360만여 명의 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NHSC는 연방 장학금 프로그램 및 연방/주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장학금 프로그램에서는 수업료, 기타 교육 관련 비용, 월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이러한 장학금은 최대 4년 동안 지급됨.
  -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의 경우 NHSC로 초기 2년간 근무 시 5만 달러를 지원하며, 2년간 전일제 혹은 4년간 반일제 임상 진료 의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본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국적자로 제한되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들은 의료인 부족 지역 내의 NHSC 승인 시설(의료취약지역 거주자에게 포괄적인 외래, 응급,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시설)에서 최소 2년간 근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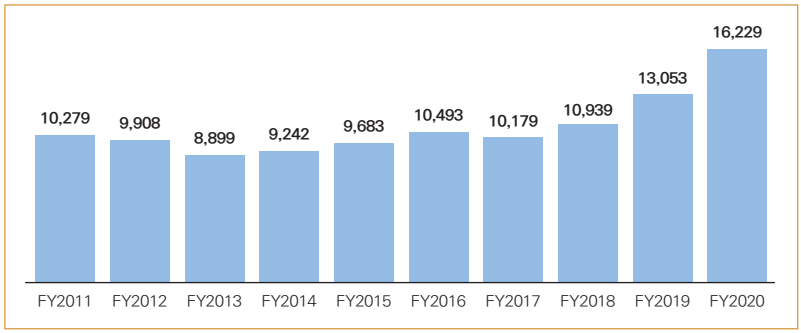
- 2011-2020회계연도에 NHSC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연결된 의사는 총 4만 8천여 명으로, 2020회계연도에는 9천여 명의 의료진에게 장학금과 학자금 상환 혜택이 주어짐.[8]

---

7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제332(a)(1)조에 의거하여 의료인의 부족 정도, 의료기관 접근성 등에 따라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매년 지정하며, 보건의료정책 지원 내용에 따라 지역·인구·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참고: HRSA 〉 Workforce Shortage Areas. 2023.2.5. 인용: https://bhw.hrsa.gov/workforce-shortage-areas/shortage-designation)

8 CRS Report. (2022). The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미국 국가보건의료지원단(NHSC)의 의무복무 의료진 현황



주: 각 회계연도별 의료인 부족 지역(HPSA)에서 의무복무 중인 NHSC 의료진 수를 나타냄.
자료: CRS Report. (2022). The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11.

2. 보건소 전공의 수련(Teaching Health Center Graduate Medical Education, THCGME) 프로그램

-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의료소외지역의 일차진료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기반에서의 전공의 수련강화를 목적으로 함.[9)]
  - 일차의료기관, 대학병원 및 지역사회가 협동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며, 전공의·의대생에게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함.

- 2022-2023학년도 기준 미국 23개 주 소재 72개 전공의 수련 보건소(Teaching Health Centers, 960여명의 레지던트 훈련)에 총 1억 5,500만여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며, 그동안 본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10)]
  - 가정의학과가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0-2021학년도에는 참여 레지던트의 93%가 의료소외지역 및 농촌에서 THCGME 프로그램에 참여함.
  - 2011년 이후 1,730여명의 신규 일차 진료의사 및 치과의사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음.

- 또한, THCGME 참가 의대생의 약 60%가 졸업 후 의료소외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9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에서는 일차의료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0년 THCGME 프로그램이 도입됨.

10 전미의료인력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Workforce Analysis)의 '미국 일차 진료의사 수급 추계(National and Regional Projections of Supply and Demand for Primary Care Practitioners: 2013-2025)'에서는 2025년경 미국의 일차 진료의사 부족이 2만 3,64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THCGME 프로그램이 의료진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함.(참고: HRSA 〉 THCGME Program. 2023.2.5. 인용: https://bhw.hrsa.gov/funding/apply-grant/teaching-health-center-graduate-medical-education)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의 예산 수십억 달러가 절감된 것으로 조사됨.[11)]

3. 의사 재훈련 및 재진입(Physician Retraining & Reentry, PRR) 프로그램

-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제시한 의사 재진입 프로그램 시스템의 원칙[12)]하에 미국에는 다양한 의사 재훈련·재진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13)]
  - 대부분의 주에서는 2년 정도 임상에서 벗어났던 의사에게 임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PRR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PRR의 목표는 의사들로 하여금 임상적 의료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해 진료행위 중단 이후에도 다시 일차의료 진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임.

-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의과대학(UC San Diego School of Medicin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미나인 'Physician Retraining & Reentry'는 캘리포니아 기반의 일차의료 약식 프로그램으로 15개 모듈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최종 시험으로 구성됨.[14)]
  - 프로그램 참가자에는 일차의료 진료를 원하는 타과 전문의, 수년간 임상진료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임상진료를 하려는 일차의료 의사, 임상진료를 다시 하려는 퇴직 의사, 일차의료 분야 파트타임을 하려는 은퇴 예정 타과 전문의, 장애로 인해 수술을 할 수 없는 외과 전문의로서 일차진료를 하려는 경우 등이 포함됨.

4.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

- 공익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할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한 「대학교육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of 2007)」에 의거하여 시행됨.

---

11 NIH 〉 On the Looming Physician Shortage and Strategic Expansion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2023.2.5. 인용: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430533/

12 '의사 재진입(physician reentry)'이란 장기간 임상 진료 활동이 없는 의사가 이전에 교육 또는 인증 받은 분야의 임상진료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함. 의사 재진입 프로그램 시스템의 열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지리·시간·비용에서의 접근가능성(Accessible), ②커뮤니케이션과 자원공유를 위한 협동(Collaborative), ③제반분야에 대한 포괄성(Comprehensive), ④의학윤리 원칙에 기반한 윤리성(Ethical), ⑤프로그램 유용성 극대화를 위한 유동성(Flexible), ⑥의사 개인별 특정 니즈를 충족하는 모듈화(Modular), ⑦최신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혁신성(Innovative), ⑧평가 메카니즘 설계를 통한 신뢰성(Accountable), ⑨기금운용의 안정성(Stable), ⑩급변하는 환경에의 대응성(Responsive).

13 AMA. (2022). Fact Sheet on Physician Reentry, 1-2.

14 Physician Retraining & Reentry. 2023.2.5. 인용: https://prrprogram.com/

-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대 졸업생의 경우 10년간 120회의 월납입액 상환 이후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해 면제해 주도록 함.[15)]
  - 의대 졸업 이후 연방·주정부,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 군대, 지역봉사 단체인 아메리코(AmeriCorps), 평화봉사단(Peace Corps) 등에서의 고용이 포함됨.

Ⅳ. 맺으며

- 의사인력은 모든 보건의료행위의 근간이자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의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16)]

-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에서 의사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인구증가와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자리잡음.[17)]

- 미국은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을 중심으로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바, 장학금·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국가보건의료지원단(NHSC), 의료소외지역 소재 전공의 수련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공의 수련(THCGME) 프로그램, 임상 복귀를 지원하는 의사 재훈련·재진입(PRR)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PSLF) 등을 시행함.

- 한국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중단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국에서 그동안 의사부족 및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다층적 대처방안들은 한국의 사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5 대출면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연방정부의 직접대출프로그램(Direct Loan Program)에 의해 학자금을 제공받은 자로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대출프로그램으로 통합하면 지원 자격이 부여됨.(참고: AAMC 〉 PSLF. 2023.2.3. 인용: https://students-residents.aamc.org/financial-aid-resources/public-service-loan-forgiveness-pslf)

16 서경화 외. (2017). 주요 국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방법론 비교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17;27(1):18-29.

17 Time. (2022.7.25). The U.S. Physician Shortage Is Only Going to Get Worse. Here Are Potential Solutions.

현안 외국에선? 발간 목록

-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
  2023-2호(통권 제52호 2023. 2. 9.)
-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3-1호(통권 제51호 2023. 1. 19.)
-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2022-24호(통권 제50호 2022. 12. 22.)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
  2022-23호(통권 제49호 2022. 12. 8.)
- 패스트패션 퇴출: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위한 EU의 노력
  2022-22호(통권 제48호 2022. 11. 24.)
-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
  2022-21호(통권 제47호 2022. 11. 10.)
-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 (Innovative Medicines Fund)
  2022-20호(통권 제46호 2022. 10. 27.)
- 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
  2022-19호(통권 제45호 2022. 10. 13.)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2022-18호(통권 제44호 2022. 9. 20.)
-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2022-17호(통권 제43호 2022. 9. 6.)
- 영국의 '미성년 부모(Young Parents)' 지원 정책
  2022-16호(통권 제42호 2022. 8. 25.)
- 일본의 아동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
  2022-15호(통권 제41호 2022. 8. 11.)
-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2022-14호(통권 제40호 2022. 7. 28.)
- 프랑스의 원자력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22-13호(통권 제39호 2022. 7. 14.)
-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 - 미연방 산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2022-12호(통권 제38호 2022. 6. 23.)
- 일본의 230만 디지털인재 양성·확보 계획 -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2022-11호(통권 제37호 2022. 6. 9.)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2022-10호(통권 제36호 2022. 5. 26.)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2-9호(통권 제35호 2022. 5. 12.)
-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
  2022-8호(통권 제34호 2022. 4. 28.)
-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2022-7호(통권 제33호 2022. 4. 14.)
-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LA 사례를 중심으로
  2022-6호(통권 제32호 2022. 3. 24.)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2022-5호(통권 제31호 2022. 3. 10.)
-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2022-4호(통권 제30호 2022. 2. 22.)
-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2022-3호(통권 제29호 2022. 2. 10.)

| ISSN 2765-1657 |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12-001764-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